



## 하나의 생활공간 문제

얼마전 새로이 대형주택에 입주하게 된 친지가 내게 상의할 것이 있다며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인즉 아무리 고민해봐도 안방과 자녀방의 위치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음...

“이 시대의 사용자 가운데에도 주거 공간 구조에 관하여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의외의 질문에 약간의 당혹감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사용자로서 흔치 않게 수준높은 고민을 하는 그를 보며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어 평소의 지론대로 기꺼이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었다.

#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What Problem? Whose Wrong?

尹汝郁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우선 방위로 본 불합리……

밝은 남쪽엔 응당 주간사용도가 높은 자녀의 공부방이 차지해야 하며, 이미 주거양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안방의 주기능은 침실이므로 그 방위가 북쪽에 위치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거의 하루종일 자연의 빛을 받는 남쪽의 방을 낮시간 내내 빈방(안방)으로 비워두는 것은 당신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얻게된 단위면적의 일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또, 집대공간으로서의 안방은 이미 그 대부분의 역할을 거실에 넘겨 주었고 앞으로는 집대행위의 일백퍼센트가 거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가지 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주변의 밝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 환경을 생각해볼 때 태양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한 모든 우주질서의 환경은 학문적으로 환경생태건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밝은 환경은 마음도 밝게 만들지만 어두운 환경은 자칫 그 사용자의 마음에 그림자를 지게 할 수 있다. …… 등등등.”

여기까지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던 그는 뭔가 결심을 한듯한 표정으로 일어선다. 조언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눈길을 주면서 다음에 저녁약속을 제의하며 악수를 청한다. 종종걸음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야릇한 감상에 사로잡혀 본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와 함께 저녁식탁에 마주앉게 되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피식 웃으며 그가 던진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

“먼저 말씀하신 점이 어쩔 제생각과도 일치하여 안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1백평에 가까운 큰 집에 남쪽, 거실과 거의 같은 크기로 딱 잘라놓은 안방을 과감하게 큰아들 공부방으로 내어주고 저희 부부는 북쪽 작은 방에다 침실을 꾸몄지요. 우여곡절 끝에 저질러 놓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와서 보시곤 펄쩍 뛰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른이 안방을 써야지 아이를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마구 나무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들은대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합당함을 설명드렸지만 막 무가내 이었어요. 그래, 공부방이 남쪽에 있어야 한다는 건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집에서 제일 큰 방을 애한테 주고 어른들은 반도 안되는 작은 방으로 밀려난단 말이나?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안방과 작은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만 비슷하면 그런대로 넘어 가겠는데 워낙 차이가 나서…

그날 혼 좀 났습니다. 허허허.

그리고 그 다음 날 집들이 한다고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뭐라고들 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아서라 아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자라면 곤란한 거 아냐?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있던 친구들은 대략 그 친구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아냐! 그건 네가 아직도 갑오경장 때 구습에서 해매고 있기 때문이야! 난 파격적 의식전환을 도모한 이 친구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 뭔가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할 땐 항상 그 시작이 주변의 반대로 시끄럽기 마련 아닌가.

뭔가 반대의 의견이 나올듯한 분위기였는데 워낙 입심 좋은 친구가 얘기한 터라 모두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날은 그 입심 센 친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셨다 간 후에 부모님과 장모님한테서 거의 매일 그 문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꼭 안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에미야, 그래 방은 옮겼냐? 하는 식으로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안사람이 이제는 제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한번 정한 걸 뒤집을 순 없고……

요즘 살아선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소장님 어디 남쪽에 자녀방 주옥 있고 북쪽에 안방 달린 집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허허허.”

이상이 그때 그가 했던 얘기의 전부이다.

그와 헤어진 후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 하고 그에게 말해줬는데 그로 인해 그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지론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인가?

남쪽에는 거실과 안방, 북쪽에는 잘게 쪼갠 자녀방, 획일화된 설계계획의 문제인가?

혹은 획일화된 계획에 길들여져(세뇌되어) 남쪽에 당연히, 반드시 안방이란 방정식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념(Paradigm) 때문인가?

과연 현 우리 사회에서 안방은 침실인가, 아닌가?

안방이 침실이 아니고 접대와 주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면 거실은 뭘 하는 곳인가?

한국식 서구주택은 거실이 두 개가 존재하는가?

끝없이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

다시 한번 묻는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 또 다른 생활공간 문제와 프라이버시

몇 개월 후 북쪽으로 6m 도로 간격을 두고 대지가 약 일층 정도 높은 곳에 이층 주택집이 없어지고 사층 연립주택(약 20평 정도 12세대)이 신축되었다.

친지는 내게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안방과 자녀방의 위치를 다시 바꾸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이유인즉 북쪽

에 연립주택도 역시 거실과 안방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안방으로 쳐다보이고 소리도 떠들썩하여 부부생활의 심리적 안정감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나는 그 현장에 가보았다.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무미건조한 피몰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그것은 건축의 시각적 다의성이 없는 구조물로 세워졌다. 오래전부터 Box형이 탈피되고 있지만 존재되고 있다. 시각적 형태는 자해로운 표정만으로 문혀버리고 다의성이 없는 상업경제적인(Anonymous적인) 이름으로 마음대로 지었다.

전면에 발코니가 하나도 없는 근생빌딩처럼 오로지 주택의 실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아무런 건축적 미학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 감정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했다. 그는 긴 시간을 두고 참아왔지만 부부생활에 너무 피해가 크다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써 동질성을 잇고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부부생활의 프라이버시 피해의 관심으로 여류이면 더욱이 발가벗은 모습들로 그리고 성에 대한 수치심은 역시 남자보다 여자의 위치에 더욱 그러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북쪽에 둔 안방은 발코니가 붙어 있었다. 창문이 문으로 되어 개방감이 있어 보였다. 문은 열린 공간과 시각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는 주장의 이론도 있지만 감추어지는 맛도 있다. 발코니에 붙어있는 반사 이중문 안방 벽에 붙어 있는 외부의 이중문 내부의 목재문을 달고 있는 문에 기능들은 외부로부터의 심한 프라이버시는 조금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커튼도 달고 선풍도 하고 조명도 끄고 그리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 때마다 도저히 신경이 쓰여 안되겠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역시 “프라이버시” 힘은 대단하구나 생각했다.

주거공간 계획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능은 과거나 현재나 중요시되고 큰 뜻으로는 문화적으로 형성되며 미래의 주거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하겠다.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상호에너지의 조정관계이다. 시끄럽고, 조용하고, 영역에 충돌이 바뀌면서 전환의 질서 법칙이며 분리의 분명함과 프라이버시로 규정되고 독립현상과 통합현상으로 나타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효과적인 제어방법은 없을까?

내·외 프라이버시의 매개공간의 발코니는 무용지물인가? 도시형 주택에서 부부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기능 공간도 구분 못하는 무지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실들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환경 상황에 따라 항상 새로운 과학적 체계방법으로 분석하고 제시해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후, 그는 안방과 자녀방을 옮겼다. 아들 녀석 혼자 쓰기에 너무 썰렁해. …… 중얼거리면서

이제 우리의 주거공간문화도 인텔리전트화 되어지고 인공지능 개발의 미래형 주거문화를 향해 초첨단 기계미학과 어울려지고 있다. 각실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기 위한 성공적인 연출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것이며 또다른 문제로 옮기는 것이다. 아득한 은신처로써 동네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자연성과 인간성을 찾아 통합된 생활공간이 더욱 그리워진다.